

〈윤선옥전〉의 구조와 배경적 특징

주수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수료, 고전소설 전공
woowang-j@hanmail.net

I. 머리말

II. 〈윤선옥전〉의 구조적 특징

III. 〈윤선옥전〉의 배경적 특징

IV. 맺음말

이 글은 2017년 2월 3일,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에서 개최된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제210회 전국 학술대회에서 “〈윤선옥전〉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주신 정인혁 선생님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I. 머리말

〈윤선옥전〉은 현재 김광순 소장 필사본만 전해지는 한글 고소설로, 처음 학계에 본 작품을 소개한 김광순에 의해 영·정조 대(1724-1800)에 유력한 양반 사대부 계층이 창작한 것으로 추단되었다.¹⁾ 더불어 이 작품에서는 고소설 작품 일반에서 추출할 수 있는 다양한 모티프들이 발견되는데²⁾, 이러한 양상은 18-19세기의 대중적 취향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다.³⁾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작품이 전체적으로 영웅소설의 서사구조를 취하면서도 영웅소설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군담은 배제된 반면, 애정담은 상당히 부각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윤선옥전〉의 본래적 특성이기보다는 김광순본이 갖는 이본적 특성이라 할 수 있으며, 기실 이 작품이 갖는 특징적 면모는 다음의 두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본 작품에 나타난 애정담의 주인공인 선옥과 박 소저의 모습이 영웅소설이 아닌 애정전기소설의 남녀 주인공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다. 둘째, 조선과 더불어 이 작품의 배경 공간으로 설정된 중국이 고소설 일반에서와는 달리 명·송과 같은 한족(漢族)의 왕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김광순본에 나타난 애정담과 군담의 흔적들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윤선옥전〉의 원작 서사가 갖는 구조적 특징을 밝히고, 더불어 이 작품에서 시공간적 배경으로 설정된 청나라와 청나라 배경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
- 1) 김광순, 「新資料 〈윤선옥전〉에 對하여」, 『어문론총』 제31호(1997), 341-342쪽. 더불어 김광순 소장 〈윤선옥전〉은 총 96면으로 한 면의 행수는 8-10행, 한 행은 15-20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질이나 목질, 편책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100여 년 전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 2) 〈윤선옥전〉의 모티프 수용양상과 그 서사적 기능에 대해서는 정미선의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정미선, 「〈윤선옥전〉의 모티프 수용양상과 서사적 기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0), 5-60쪽.
 - 3) 권영호는 역주본의 해제를 통해 본 작품을 영웅소설이면서 적강소설이고 애정소설이자 창작군담소설이라 평하며, 이러한 양상을 18-19세기의 대중적 고소설이 지닌 특징으로 보았다(권영호, 「윤선옥전」, 『김광순소장 필사본 100선-윤선옥전·춘매전·취연전』, 박이정, 2014, 18-20쪽). 이러한 평가는 본 작품이 그만큼 고소설 일반에 등장하는 다양한 모티프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II. <윤선옥전>의 구조적 특징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김광순본의 주요 사건 단락을 해당 지면과 함께 제시하면 표1과 같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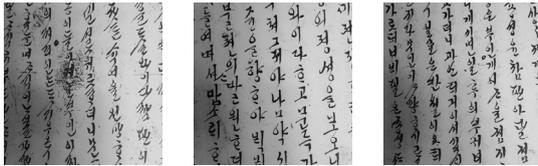
표1-주요 사건 단락

	<윤선옥전>의 주요 사건 단락	해당 지면
①	대청 융성 연간 조선 함경도 증성 땅에 사는 윤 참판 부처가 금산상 관 음전에 발원 후 천상에서 득죄하고 하강한 태을성을 낳아 이름을 선옥이라 하다.	1-15
②	선옥이 십오 세 되던 해에 외숙인 병조참의 최순태가 윤 참판 댁을 방문하고 선옥을 위해 강원도 원주 땅에 사는 박 판서의 딸과 혼인을 주선하다.	15-19
③	강원도 원주 땅에 사는 박 판서 부처는 기자치성으로 늦게야 얻은 외동딸 박 소저의 배필이 증성에 사는 윤 참판의 아들임을 몽사를 통해 알고 있던 터에, 최순태가 선옥과 박 소저의 혼인을 주선하자 기꺼이 허혼하다.	19-30
④	증성으로 최순태가 돌아오자 윤 참판 부처는 기쁜 마음에 즉시 길일을 택하여 두 사람을 혼인시키니 혼인날 밤 두 사람의 정이 가득하다.	31-40
⑤	첫날밤이 지나기 전 요동 옥찬의 침입으로 두 사람이 밀화동곳과 봉채를 신물로 나누어 갖고 헤어지다.	41-44
⑥	선옥은 박 소저와 헤어져 상상봉 운산각에 이르러 천상 칠성을 만나 5일간 수학하고 하산하니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이다.	44-52
⑦	선옥과 헤어진 박 소저는 도적에게 욕을 당할 상황에 놓이자 은장도로 자결하고 남약신령과 금산상 관음보살의 도움으로 재생 후 용추사에 머물게 되다.	52-60
⑧	옥찬의 소고가 거세지자 어명으로 윤보상은 이들을 평정하고, 이후 보상은 고향을 떠나 경기도 축산 땅으로 거처를 옮기다.	60-62
⑨	하산 후 고향을 찾은 선옥은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처가에 가 박 소저의 죽음을 알고 제문을 지어 조상하다.	63-65
⑩	옥찬의 난이 평정된 후 태평과가 열리자 선옥은 경성으로 향하고, 여기서 관복의 딸 난향을 첩으로 맞이하다.	66-69
⑪	과거에 장원급제한 선옥은 부친 및 장인과 재회하여 박 소저의 소식을 전하고 암행어사에 제수되어 방방곡곡을 다니다.	70-76
⑫	안동 춘양면에 사는 이만개가 본관에게 뇌물을 써 용추사 법당 뒤에 묘를 쓰자 용추사 노승이 박 소저에게 소지를 부탁하고, 박 소저가 쓴 소지를 본 윤 여사는 이만개에게 묘를 이장하라 명하다.	76-82
⑬	용추사에 머물게 된 윤 여사가 한 노승이 반가운 이를 볼 것이라 말하는 꿈을 꾸고 증각을 배회하던 중 박 소저를 만나 신표를 교환하고 재회하다.	82-90

4) 표1은 필자의 선행 연구에 실린 <윤선옥전>의 사건단락 표에 해당 사건이 전개되는 지면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주수민, 『고전소설에 나타난 중국인식 연구: 원·청 배경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7), 109-110쪽.

⑭	윤선옥과 박 소저가 난항을 비롯한 모든 가족과 재회하다.	91-93
⑮	중원 천자가 패문을 보내 청병하니 윤선옥이 도원수가 되어 중국에 들어가 석 달 만에 도적을 물리치고 위국공이 되어 이후 위국으로 가 자자손손 현달하다.	93-96

표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윤선옥의 영웅적 일대기를 다룬 영웅소설이라 할 수 있다.⁵⁾ 그러나 표1의 해당 지면에 제시된 서사 분량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김광순본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는 것은 선옥과 박 소저의 애정담이다.⁶⁾ 게다가 김광순본에는 구체적 군담이 모두 배제되었는데⁷⁾, 이러한 양상은 본 작품을 ‘특이한 서사구조를 지닌 작품으로 규정하게 했다.’⁸⁾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기실 〈윤선옥전〉의 본래적 특성이라기보다는 김광순본의 이본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⁹⁾



A

B

C

그림1-김광순 소장 필사본

- 5) ①에는 無子하던 윤보상 부처가 금산상 관음전에 올라 기자치성을 올린 후 천상 태을성의 후신인 선옥을 아들로 얻게 되는 과정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더불어 요동 옥찬의 침입으로 박 소저 및 부모와 이산하게 된 선옥은 ⑥에서처럼 천상 칠성으로부터 닷새 동안 다양한 재주와 학문을 전수받고, 하산하여 ⑩에서와 같이 과거에 급제한다. 게다가 선옥은 ⑮에서와 같이 원병장이 되어 중원에 들어가 도적을 물리치기도 하는데 이러한 양상은 이 작품이 전체적으로 영웅소설의 서사구조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6) ②, ③, ④, ⑤, ⑦, ⑮은 선옥과 박 소저의 결연과 이별, 재회를 다루고 있다. 더불어 ⑨는 선옥이 박 소저의 죽음을 알고 제문을 지어 조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⑫는 암행어사 윤선옥의 활약상을 담고 있으나 기실 선옥의 영웅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선옥과 박 소저의 재회를 위한 서사적 설정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 사건 단락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서사의 절반이 넘는다는 것이다.
- 7) 〈윤선옥전〉에서 군담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서사단락에는 ⑧과 ⑮가 있으나, 군담에 대한 구체적 서술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 8) 김광순은 이 작품이 전체적으로 영웅의 일생을 그리고 있다고 하면서도 남녀 주인공의 애정담이 상세하게 서술된 것과는 달리 남성 주인공의 출장입상이나 군담은 구체적 서술이 아닌 간단한 설명으로 대체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작품이 “특이한 서사구조”를 취한다고 서술한 바 있다. 김광순, 앞의 논문, 345-346쪽.
- 9) 이 글에서는 김광순본 〈윤선옥전〉을 원작의 서사를 지닌 〈윤선옥전〉과 구별하기 위해 ‘김광순본’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그림1은 김광순본의 일부를 제시한 것으로, 김광순본에는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의 필체가 나타난다.¹⁰⁾ 이러한 양상은 현재 학계에 유일본으로 보고된 김광순본이 원본이 아니라는 사실과 더불어 또 다른 이본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김광순본에 나타난 애정담과 군담의 흔적들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윤선옥전〉 본래의 구조적 특징을 밝혀보고자 한다.

1. 애정전기소설의 전통 수용

일반적으로 영웅소설에서 주인공이 겪는 초분(初分) 고난은 주인공이 본격적으로 영웅성을 함양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이 작품에는 부모구 몰이나 부모이산으로 인한 선옥의 초분 고난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초분 고생담의 자리에는 선옥과 박 소저의 애정담이 위치한다.¹¹⁾ 더불어 두 사람의 애정담에는 일반적인 영웅소설에서와는 달리 두 남녀가 정신적으로 교감하는 가운데 강한 유대감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이 꺾진하게 제시된다. 더욱이 두 사람의 이별은 김광순본에서 가장 큰 갈등으로 그려지는데, 그 구체적 양상은 초기 소설사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애정전기소설을 방불케 한다.

잇썩 요동 옥춘이란 놈이 억만병을 거리고 조선의 드러와 요요장난 호는지라 이날 밤의 원썩을 함썩히고 인민을 흠살성히호야 천병당을 저어 박산서의 집을 화송하고 직무를 탈진호겨날 스투이 도망호고 분분호지라 잇썩 선옥이 소제을 다리고 허하양낙호여니 문득 문 밧기 요란호겨늘 놀너 너다보니 화광이 등천호고 본집 스투 없시며 천광만 타드러오겨날 선옥이 홀 길 업셔 소제의 손을 잡고, “실푸다 조물리 시긔호야 신경이 미홍호티 이지경이라.” 어니 엇지 실푸지 안이호리요. [...] “첩은 아녀즈라 죽기술기 관계 업건이와 만큼 갖튼 군즈 일신을 안보호와 아무씨라도 평난 후 현문의 장가드러 후사랄 이루소서”¹²⁾

10) A, B, C는 『김광순소장필사본 한국고소설전집 26』에 영인된 〈윤선옥전〉의 일부로 각각 371쪽, 377쪽, 387쪽의 이미지를 제시한 것이다.

11) 더불어 영웅소설에서 남녀의 결합은 대부분 양가의 허락을 모두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주로 주인공의 잠재된 혹은 발현된 영웅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두 사람의 만남은 양가의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아무런 장애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결연’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데, 김광순은 이러한 양상을 영정소설의 요소가 가미된 결과로 보았다. 김광순, 앞의 논문, 6-7쪽.

12) 〈윤선옥전〉, 41-42면.

위의 글은 혼인 첫날밤 ‘느닷없이’ 닥친 요동 옥찬의 소요로 선옥과 박 소저가 이별을 맞닥뜨린 상황을 인용한 것이다. 본래 천상 태을성과 세미성의 후신(後身)으로 천정(天定)에 의해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며 애뜻한 정을 나누던 중 뜻하지 않게 이별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사랑하는 남녀가 맞이하는 원치 않는 이별은 애정전기소설의 양식적 특징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¹³⁾ 더불어 차마 홀로 달아나지 못하는 선옥을 도피시킨 박 소저는 이후 도적들을 엄정하게 꾸짖은 후¹⁴⁾, “은장도 넌진 즈바 목을 질너 자결”¹⁵⁾하는데, 이러한 두 사람의 모습은 다음에 인용한 〈이생규장전〉의 이생과 최랑을 떠올리게 한다.

신축년(辛丑年)에 홍건적(紅巾賊)이 서울을 점령하매 임금은 복주(福州)로 피난 갔다. 적들은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가족을 잡아먹으니, 부부와 친척끼리도 능히 서로 보호하지 못하고 동서로 달아나 숨어서 제각기 살길을 찾았다. 이생은 가족들을 데리고 궁벽한 산골로 숨었는데 한 도적이 칼을 빼어 들고 쫓아왔다. 이생은 겨우 달아났는데 부인은 도적에게 사로잡힌 몸이 되었다. 도적은 최랑의 정조를 겁탈하고자 하였으나 부인이 크게 꾸짖었다. “이 호랑이 창귀 같은 놈아! 나를 죽여 씹어 먹어라. 내 차라리 죽어서 승냥이와 이리의 밥이 될지언정 어찌 개돼지 같은 놈의 짝이 되어 내 정조를 더럽히겠느냐?” 도적이 노하여 부인을 죽이고 살을 도려내었다. 한편, 이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전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그 집은 이미 병화(兵火)에 다 타버리고 없었다. 다시 아내의 집에 가 보니 행랑채는 황량했으며,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저귀 뿐이었다.¹⁶⁾

한편, 애정전기소설 일반은 두 남녀가 자유롭게 만나 사랑하다 신분 차이로 사랑을 성취하지 못하는 데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형상화하고 있다.¹⁷⁾ 다시 말해, 애정전기에서 혼전 남녀의 자의적인 만남은 작품의

13) 엄태식은 “느닷없이 닥친 전란으로 남녀 주인공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을 애정전기 소설의 양식적 특징으로 보았다. 엄태식, 「애정전기소설의 서사문법과 결말구조」, 『동양학』 제53집(2013), 10쪽.

14) 〈윤선옥전〉, 52-53면. “도적 슈천 명이 달너드러 가스를 탈진하고 요란요란하다가 혼 도적이 문을 열치고 소저을[소제를] 보고 왈, “너 평싱 호식히디 저른 미식을 보지 못하야틴 오날 보야도다.” 달너드러 손을 잡고 히롱히거날 소제 손을 부리고 고성디진 왈, “너 윈 놈드리 아무리 무도하야 세상의 요인키 히거니와 인륜을 모로온다.”

15) 〈윤선옥전〉, 53면.

16) 김시습 저, 구인환 역, 『이생규장전』, 『금오신화』(신원문화사, 2003), 52쪽.

17) 박일용, 「전기적 애정 모티프의 영웅소설적 형상화 방식 연구」, 『인문과학』 제3권

비극성을 추동하는 주요한 원인이자, ‘애정전기소설’의 ‘애정(愛情)’이 담고 있는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¹⁸⁾ 그런데 이 작품은 다음과 같이 ‘꿈’이라는 장치를 통해 두 사람의 혼전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

“…… ‘낭즈난 전싱스를 이저는잇가? 나는 톱을성니옵고 낭즈는 새미성이옵던니 동서상분하야더니 상지 요지연의 갑습겨날 톱을성니라 세미성이 피시 근심하다가 우연니 눈맞쳐 히롱히엿던니 상제 노흐스 낭즈는 박판서 너즈되기 호고 나는 종성 순츰판운 참판 아달되되 호여 후싱 빅년을 밋즈신니 낭즈 드라지 말고 슈죽흐스이다’ 소예소녀 옥슈을 즈바 안치겨날 홀 길 업서 외면상되호오니 그 공직 탄식 왈 ‘네 일흠은 윤선옥이요 즈난 진주라 호겨이와 낭즈의 일흠은 뉘라 호난요? 호겨날 소녀 일흠을 가라치고 슈죽호으니……’¹⁹⁾

위의 글은 선옥의 외숙인 최순태가 선옥의 혼처를 구하기 위해 강원도 원주 박 판서의 집을 방문하자, 이 소식을 들은 박 소저가 꿈에서 선옥과 있었던 일을 모친께 전하는 내용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선옥과 박 소저는 혼담이 오가기 전 이미 상면하고 수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두 사람의 만남은 비록 ‘꿈’이라는 장치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꿈을 통한 교감이 결국 두 사람의 애정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애정전기소설에 나타난 남녀의 혼전 만남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꿈’이라는 서사적 장치를 통해 마련된 두 사람의 혼전 만남은 비슷한 문벌을 가진 두 집안의 정식 절차를 통한 혼인으로 귀결됨으로써 결국은 두 사람의 결연이 ‘천정’임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더불어 이 작품의 주된 갈등으로 설정된 전란이라는 세계의 횡포와 박 소저의 자결로 인한 두 사람의 이별은 박 소저가 관음보살의 도움으로

1호(1995), 5-21쪽.

18) 엄태식은 애정전기소설에 나타난 애정의 본질은 혼전에 벌어지는 남녀의 육체적 관계에 있으며, 그러한 까닭에 한국의 애정전기소설은 기본적으로 비극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엄태식, 앞의 논문, 5쪽 인용). 더불어 소인호는 〈최치원〉이나 〈만복사저포기〉와 같은 초기의 애정전기소설이 전기성을 바탕으로 남녀의 애정문제를 통해 지식층의 소외의식과 비판의식을 담아냈다면, 17세기 이후의 애정전기소설들은 비현실성과 환상성에서 벗어나 만남과 이별을 중심으로 한 남녀의 애정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점에서 〈윤선옥전〉에 나타난 애정은 초기 애정전기소설에서의 ‘애정’이 아닌 17세기 이후의 애정전기소설에 나타난 ‘애정’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소인호, 「조선중기 애정전기소설의 양식적 특성 연구」, 『인문과학논집』 제37집, 2008, 2쪽 인용).

19) 〈윤선옥전〉, 27-28면.

재생하고 선옥과 재회함으로써 그 비극성을 상실한다.²⁰⁾ 즉, 세계의 횡포를 초월적 존재의 도움으로 극복한 두 사람의 재회가 이루어짐으로써 작중 이별은 두 사람의 사랑을 보다 탄탄하게 해주는 계기가 된 것이다.²¹⁾ 이러한 양상은 애정전기소설에서와는 다른 것으로 이는 향유층의 확대에 따른 소설의 통속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²²⁾ 다시 말해, 이 작품은 애정전기소설의 양식적 특징을 영웅소설 향유층의 욕구에 맞도록 변형하여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운선옥전〉에 나타난 선옥과 박 소저의 애정담은 애정전기소설의 서사적 전통이 조선 후기 영웅소설에서도 여전히 이어졌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²³⁾

2. 중국 원정 영웅소설

김광순본에는 영웅이 무훈을 세우는 구체적 과정에 대한 서술 일체가

-
- 20) 이와 같이 죽은 여성이 재생한다는 것 역시 〈하생기우전〉이나 〈숙영낭자전〉과 같은 애정전기소설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영웅소설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설정이라 할 수 있다.
- 21) 일반적인 애정전기소설에 등장하는 초월계는 운명의 비극성을 보여주는 기능을 하지 만, 〈운선옥전〉의 초월계는 오히려 현실에서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이명현의 지적과 같이 초기 애정전기소설에 반영된 소외된 지식층의 비극적 세계관이 이후 민중의 낙관적 세계관으로 변모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명현, 「〈유생전〉, 〈방씨전〉, 〈유문성전〉 비교」, 『어문논집』 제34집 (2006), 216쪽.
- 22) 박일용은 애정전기소설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소설 향유층인 소외된 지식인의 자의식이 두드러지게 표출되고 있다는 점을 꼽은 바 있다. 다시 말해, 작품 및 창작 시기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애정전기소설 대부분이 문벌이 다른 남녀의 애정문제를 그리면서 주된 소설 향유층인 한미한 남성 주인공의 현실적 처지를 부각하며 그들의 소외의식과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운선옥전〉의 두 남녀는 문벌이 비슷하고 혼인이라는 예법에 따라 결연한다. 이러한 양상은 박일용의 지적과 같이 비판적 지식층이 소설의 주된 향유층으로 존재하던 초기의 애정전기소설과는 달리 조선 후기 소설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명분론적 사고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박일용, 앞의 논문, 5-21쪽). 더불어 박희병은 애정전기소설의 남녀 주인공은 상호 독점적 관계에 놓이며 끝까지 서로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신의를 바탕으로 형성된 강한 정서적 유대와 일체감은 어느 한 사람이 먼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손상되는 법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23쪽 각주16 참조). 그러나 선옥은 박 소저의 죽음을 확인하고 이후 난향을 첩으로 들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양상은 이 작품이 영웅소설의 틀 안에서 애정전기의 양식적 특징을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3) 초기 소설사에 나타난 애정전기소설과 후대 양식인 영웅소설의 관련성은 한문소설 〈유생전〉과 한글소설 〈유문성전〉의 관계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자세한 논의는 앞에서 제시한 박일용과 이명현의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김광순본이 지닌 이본적 특징으로 본래 〈윤선옥전〉에는 적어도 두 번 이상의 군담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⁴⁾

첫 번째 군담은 서사 초반 “억만 병을 거느리고 조선에 들어온”²⁵⁾ 요동 옥찬의 침입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전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옥찬의 침입은 선옥과 박 소저 부부를 이산하게 만든 직접적 계기로 작용하였을 뿐 아니라, “서북도를 다 합성하고 삼남으로 쳐 다 흡성”²⁶⁾할 만큼 조선에서 맹위를 떨쳤던 것으로 서술된다. 그리고 옥찬의 소요를 진압하러 나선 것은 다름 아닌 선옥의 부친 윤보상이었다.

“경의 충절은 본디 알거이와 짐이 일미소선하니 너염 울울하더니 이제 도적이 일국의 요란하니 경니 짐을 위하야 도적을 평정하고 일국을 화평케 하면 천금상 만호후를 봉하리라.” 하신디 참판니 쏘 주면 왈, “소신이 비록 죄조 업사오니 십분 힘써 일국 근심을 덜이다.” 하고 천은을 축사하고 십만 티군을 거너러 한번 북 치면 도적을 시러바리거날……²⁷⁾

위의 글은 임금이 병조판서 정춘개의 천거로 참판 윤보상을 옥찬 토벌대장으로 명하고, 윤보상이 어명을 받드는 장면을 인용한 것이다. 그런데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이후 윤보상과 옥찬의 전투는 ‘십만 대군을 거느려 한 번 북을 쳐 도적을 쓸어버렸다’는 단 한 문장으로 제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옥찬 진압과정의 일체가 생략된 것이다. 그러나 요동 옥찬이 조선 땅과 주인공 부부에게 일으킨 폐해를 고려했을 때, 윤보상의 옥찬 토벌은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두 번째 군담은 선옥이 과거를 통해 입신(立身)하고 가족과 상봉한 뒤, 천자의 원병 요청으로 중국에 들어간 이후에 중원을 무대로

24) 앞서 살핀 김광순본이 원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이 작품이 본래 구체적 군담을 배제한 채 창작되었을 가능성은 마땅히 상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고전 소설의 서사문법상 신이한 존재에 의해 예언된 내용들은 대부분의 작품들에서 반드시 실현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군담의 흔적과 더불어 예언의 실현이라는 측면에 집중하여 이 작품에서 군담이 전개되었을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25) 〈윤선옥전〉, 41면. “잇찌 요동 옥찬이란 놈이 억만병을 거리고 조선의 드러와 요요장난 하느니라.”

26) 〈윤선옥전〉, 60면.

27) 〈윤선옥전〉, 61-62면.

전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윤선옥의 중국 활약상 역시 다음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십만 대군을 거느리고 중원에 들어가 석 달 만에 도적을 쳐 파했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다.

주상이 선옥 불러 호고 왈, “경이 덕군을 거느려 중원 드러가 덕공을 이우면 죽벽의 울니라.” 호신덕 선옥이 봉명하고 십만 덕군을 거느려 주위의 드러가 석 달 달만의 도적을 쳐 파하고 천즈기 비온디……28)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김광순본의 특성으로 본래 중국에서의 군담은 상당한 지면에 걸쳐 아주 흥미롭게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먼저, 서사 초반 요동 옥찬의 소요로 가족과 헤어진 선옥은 상상봉에서 천상 칠성을 만나 닷새간 수련을 받은 뒤 다음과 같이 신이한 물건들을 전해 받고 하산하게 된다.

노인 왈, “진주필자 주해: 윤선옥의 재난 세상의 눈 칠십만의 상제 불 겨시니 그 썩면 서로 만나리라. […] ㉠ 이 칙은 십만 덕병을 거느려 횡군홀 제 시난 칙이라. 이 칙은 보면 변화불칙하라.” 호고 또 겨우을 주면 왈, “㉡ 니난 말니경니라. 아무리 어려오도 이 겨우를을 보면 압결리 탄년하라. […] 어난 썩 궁흔 일과 군속홀 썩 잇거던 ㉢ 이 주머니을 여러 보면 아리라.” 호고 선옥이 바다 몸의 간슈호고 나오던니 ……29)

위에서 칠성은 선옥에게 ㉠, ㉡, ㉢에 나타난 십만 대병을 거느릴 수 있는 용병술을 담은 책과 만리경 그리고 주머니 등을 전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의 서사에서 이 물건들이 유용하게 쓰일 상황이 도래할 것임을 암시한다. 더불어 실제로 선옥은 ‘십만 대병’을 거느리고 중원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위에 제시된 물건들은 이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양상은 이 물건들이 쓰인 일체의 상황들이 김광순본에서 생략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준다. 더욱이 중국에서의 선옥의 활약과 성공은 이미 박 소저와 혼인하기 전부터 예정된 운명적인 것이었다.³⁰⁾ 더불어 결말에는 윤선옥뿐 아니라 선옥의 부친인 윤보상

28) <윤선옥전>, 94면.

29) <윤선옥전>, 51-52면.

30) 박 소저는 선옥과 혼인하기 전 꿈 속에서 선옥이 “삼국도원슈요 인국덕민안”(《윤선옥전》, 27면)이라는 글자가 황금자로 쓰인 옷을 입고 있었다고 모친에게 말한 바 있으며,

역시 천자로부터 노국공에 봉해진다는 서술이 나타난다. 이는 윤보상이 직접 중국에 들어가 전공을 세우지 않은 이상 선옥의 활약이 부친의 전정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중국에서의 활약상이 흥미롭게 전개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국을 무대로 한 군담 전개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윤선옥전〉의 본래 서사는 〈장인걸전〉이나 〈이화전〉, 〈신유복전〉, 〈이린전〉 등과 같이 주인공의 활약상이 한반도와 중국에서 비등하게 전개되는 중국 원정 영웅소설의 서사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김광순본의 서사는 군담이 배제된 까닭에 상대적으로 애정담이 부각되는 양상을 보이나 기실 〈윤선옥전〉은 애정전기소설의 전통을 수용한 중국 원정 영웅소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Ⅲ. 〈윤선옥전〉의 배경적 특징

〈윤선옥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조선과 중국을 무대로 선옥의 활약상을 담고 있는 중국 원정 영웅소설의 하나이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작품에 나타나는 중국이 일반적인 중국 배경 고소설의 중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본 작품의 배경적 특징과 그 의미를 조선 후기의 사회상과 여타 고소설 작품들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시공간적 배경으로 설정된 청나라

주지하듯 우리 고소설의 상당수는 중국을 배경으로 한다. 더불어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 조선 후기 인기리에 향유되었던 중국 배경 작품의 대부분은 중국의 여러 왕조 중에서도 특히 명·송과 같은

선옥은 첫날밤 박 소저와 헤어져 오르게 된 상상봉 운산각 현판에는 “함경도 풍성 출산동의 도참판의 보상 아달 삼국도원슈 인국티승상 윤선옥이 츠즈오리라”(〈윤선옥전〉, 45-46면)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 그리고 선옥은 이후 서사에서 중국에 침입한 도적을 몰아낸 공으로 삼국도원수가 되는데, 이러한 양상은 선옥의 중국 활약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된 것으로 중국 원정담이 이 작품의 주요 서사로 설정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족(漢族)이 세운 왕조들을 배경으로 한다.

“대명 성화 년간의 일위 직상이 ”시되……” 〈소대성전〉

“대명 가정 년간 절강부 금능사의 혼 명환이 ”시되……” 〈장풍운전〉

“각설이라 디명국 영종 황지 직위 초의 왕실리 미약하고……” 〈유충렬전〉

“각설 송 문제 즉위 이십 습연이라……” 〈조웅전〉

“디송 신종 황제 시절의 병부상서겸 병마디도독 승평왕의 성은……” 〈남정팔난기〉³¹⁾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중화의식’ 혹은 ‘조선중화의식’의 소설적 반영으로 이해되어왔다.³²⁾ 그런데 〈윤선옥전〉은 다음과 같이 서두에서부터 “대성 융성 연간”을 시간적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³³⁾

디청 융성 년간 조선국 함경도 닷의 명환가 이시되 성은 유요 일흠은 보손이라 조문등과호 벼슬이 리조참판의 거허다가 적연 상디하여 소인 참소를 만나 무발지가하여 경은 저월허수로 일삼마 계신의 부스허민되여는 지나가이 허야 연세의 오십세의 싯허 자식이 업느니라.³⁴⁾

또한 다음은 서사 초반 선옥이 박소저와의 혼인을 위해 강원도 원주로

31) 인용문은 각각 〈소대성전〉 서울대학교 규장각본, 〈장풍운전〉 국립중앙도서관본, 〈유충렬전〉 국립중앙도서관본, 〈조웅전〉 삼성출판박물관본, 〈남정팔난기〉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의 서두이다.

32) 정길수는 〈창선감의록〉, 〈소현성록〉, 〈완월회맹연〉과 같이 17세기 후반에 창작된 작품들에는 ‘조선중화주의’가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러한 양상을 병자호란의 치욕과 청나라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일종의 “정신적 승리법”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더불어 임치균은 조선 후기 소설이 당·송·명과 같은 한족의 왕조는 배경으로 하면서도 원이나 청을 배경으로 하지 않은 것을 조선시대에 팽배했던 한족 중심의 사고방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았으며, 엄태웅은 명과 송이 고전소설의 배경으로 등장한 원인을 이들 왕조가 당대 조선인들에게 중화질서의 정통성을 계승한 우호적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정길수, 「한국 고전문학에서의 주체와 타자: 한국 고전소설에 나타난 ‘中華主義’」, 『국문학연구』 제15호(국문학회, 2007), 132-147쪽; 임치균, 「조선 후기 소설에 나타난 청나라 지배의 중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의미」, 『장서각』 제24집(2010), 113-114쪽; 엄태웅, 『방각본 영웅소설의 지역적 특성과 이념적 지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1), 154-156쪽.

33) 청나라의 연호 가운데 ‘융성’이라는 연호는 없다. 따라서 권영호는 역주본의 해제를 통해 ‘융성’을 ‘雍正(1722-1735)’으로 추정하기도 했다(권영호, 앞의 책, 21쪽). 그러나 이 작품에는 청나라의 연호가 “융경”과 같이 명나라 목종 때의 연호로 표기된 곳이 있어 정확한 연호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연호의 정확성을 떠나 〈윤선옥전〉은 분명 “디청”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34) 〈윤선옥전〉, 1면.

향하는 장면을 인용한 것으로, 밑줄 친 부분과 같이 본 작품에서 시간의 경과와 청나라 연호의 사용으로 나타난다.

선옥이 팔관의 마계(거미) 호수도 □류하다 비운중 신선인듯 옥덕정정 두목진듯
선풍도골이요 풍치 늠늠하고 외의 식식하야 누 안니 청춘하리요 방의이여 다회 들러
두급하고 아류원 미이 드른 옥슈란 좁고 주림을 짓난지라. 누일만의 원쥬로 득달하이
잇던 용경 니십연 병인 춘습월 초철일니라.³⁵⁾

그런데 이러한 양상은 건륭(高宗, 재위 1735-1795) 말년의 청조(淸朝)를 시공간적 배경으로 서사를 전개하고 있는 <정세비태록>을 제외한 여타의 작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라 할 수 있다.³⁶⁾ 더불어 조선 후기 지식인들은 병자호란 직후부터 청나라와 ‘조공-책봉 관계’를 형성하였을 뿐 아니라, 명나라가 부재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저작에 명나라의 마지막 연호인 ‘숭정(崇禎)’을 사용하고 있었다.³⁷⁾ 따라서 <윤선옥전>에서 청나라 연호를 사용하는 것은 조선 후기 중국 인식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양상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김광순본에는 비록 청나라를 무대로 한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는 않으나, 분명 조선과 더불어 청나라를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작품은 청나라를 시공간적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지하듯 문학 작품에서 배경이란 사건이 전개되는 구체적인 시공간을 넘어 인물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주요한 지표가 된다. 따라서 배경이 갖는 콘텍스트성 혹은 상호 텍스트성을 염두에 둘 때³⁸⁾, 만연한 중화의식 속에서 한족 왕조를

35) <윤선옥전>, 34면.

36) <정세비태록> 외에도 현재까지 청나라를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는 1896년 5월 19일-7월 10일 사이에 <한성신보>에 연재된 “청나라 도광 연간(1820-1850)의 南京, 강도 땅”을 배경으로 한 <조부인전>이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고소설이گی보다는 근대소설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조부인전>에 대해서는 조혜란의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조혜란, 『한성신보 소재 <조부인전> 연구: 구여성의 자기 각성과 현실대응 양상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제45권(2014), 59-83쪽.

37) 조선의 선비들은 명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崇禎紀元”을 사용하며 이를 존주의 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했으며, 숭정 연호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아예 연호 쓸 자리를 얼버무리는 등 청나라 연호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이이화, 『한국사 이야기』(한길사, 2001), 55쪽.

38) 류슈열은 ‘맥락’ 혹은 ‘문맥’을 뜻하는 ‘콘텍스트’를 문학작품에서는 작가, 창작 상황, 당대적 이데올로기, 사회 문화적 배경, 장르적 문법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고 여기에는 독자뿐 아니라 작품의 제목 및 문학사적 전통까지도 귀속될 수 있다고 하였

배경으로 한 작품이 속출하는 가운데 생성된 청나라 배경 작품은 분명 우리 소설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³⁹⁾

2. 청나라 배경의 의미

그렇다면 청나라 배경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조선 후기 사회는 전란의 상처와 명·청이 뒤바뀐 혼란을 끌어안고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대내외적 혼란을 강력한 화이관(華夷觀)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조선 지배층의 의지는 ‘중화의식’을 조선 후기 사회의 문화적 헤게모니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우리 고소설에도 여실히 반영되어, 영웅소설과 대장편소설을 위시한 중국 배경 고소설 일반에는 한족이 세운 왕조를 배경으로 한인(漢人)이 호국, 서번, 토변과 같은 이민족으로부터 중화세계를 수호한다는 내용이 거의 빠지지 않고 나타난다. 더욱이 〈박씨전〉이나 〈임경업전〉과 같은 작품에는 다음과 같이 청나라 황제를 “왕놈”이나 “호왕”으로 부르는 등 극단적 배척의식이 표출되기도 한다.

“불상코 가련ኻ도다! 저 장슈야! 세상의 약흔 여즈을 당치 못ኻ고 엇지 디장부라 하며 저런 거시 타국 디장이라 ኻ고 나와 조선 일등 강병을 어이 당할소냐 너의 왕놈니 급슈와 같툃지라 천위를 모르고 망발상의ኻ야 감이 우리 조선을 침범코져 ኻ고 너갓툃 어린 아히을 보넻도다.”⁴⁰⁾

경업을 잡아드려 꾸지조니 경업이 조금도 격ኻ미 업서 도로혀 디즐 왈, “무도한 오랑키 놈야. 너 비록 잡혀왔스나 너의를 보기를 초기갓치 혼넻니 죽이려 ኻ거든 디디지 말나” 하니 호왕이 디로 왈……⁴¹⁾

다. 따라서 조선 후기의 사회·문화적 배경 및 영웅소설이나 대장편소설의 일반적 서사문법을 고려할 때 고소설의 원·청과 같은 이민족 왕조 배경이 지닌 콘텍스트성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류수열, 「〈사미인곡〉의 콘텍스트와 상호텍스트적 읽기」, 『독서연구』 제21호(2009), 87-88쪽.

39) 안기수는 우리 고소설의 70%에 해당하는 작품이 조선이 아닌 중국을 서사적 배경으로 한다고 서술한 바 있으며, 조동일은 한국고전소설 목록에 올라와 있는 858종의 작품 가운데 일본의 총수가 50종 이상인 작품 36종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청나라를 배경으로 한 작품은 단 한 편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수많은 중국 배경 고소설 작품들 가운데 청나라를 배경으로 한 작품은 극히 드물다. 안기수, 「한국 영웅소설에 수용된 중국문화의 배경 연구」, 『어문론집』 제53집(2013), 230쪽; 조동일, 『소설의 사회사 비교론 2』(지식산업사, 2001), 119-122쪽.

40) 〈박씨전〉, 63-65장,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

41) 〈임경업전〉, 19-20장,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경판본.

그런데 이 작품은 청나라를 배경으로 할 뿐 아니라 청나라 황제를 “천자”라 부르고 있다.⁴²⁾ 이러한 양상은 호국 공주를 통해 “호족에 대한 유연한 시각”을 표출한 것으로 평가되는 심능숙(沈能淑, 1782-1840)의 〈옥수기〉와도 구분되는 것으로⁴³⁾, 분명 여타의 고소설 작품들과는 중국 인식의 측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작품에는 명·송과 같이 역사 속에서나 존재하는 중화(中華)가 아닌 당대 실질적으로 중국을 지배하고 있던 청나라 중심의 세계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윤선옥전〉의 주인공 선옥은 청나라가 조선에 원병을 요청하자 도원수가 되어 십만 대군을 이끌고 중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조선의 출병은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 상당히 영광스러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잇썩 줌원 천즈 픽문 보닉 청병헝거늘 주상이 만조제신을 불너, “뉘 능히 나를 위하야 줌원 드러가 성공하야 일흠을 휴세에 전홀고.” 허신티 최승생좌승생 유선논이 주왈, “즈금 어스 윤선옥은 당세 영걸지인이오니 지금 윤선옥을 불러 도원수 절을 주어 보닉시면 정영 성공하옵고 우리나라 빛날 거시의 보닉옵소서.” 주상이 선옥 불러 호교 왈, “경이 디군을 거느려 줌원 드러가 디공을 이우면 족벽의 올니라.” 허신티……⁴⁴⁾

게다가 중국에서 공을 세우고 석 달 만에 고국에 돌아온 선옥은 조선 왕의 극진한 환영을 받는데⁴⁵⁾, 이러한 양상은 청나라로의 원군 파병이 ‘금주위싸움’이나 ‘나선정벌’ 때와 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⁴⁶⁾

42) 〈윤선옥전〉, 93면. “잇썩 줌원 천즈 픽문 보닉 청병헝거늘……”

43) 탁원정은 胡國 공주의 중국 입성을 기점으로 오랑개에게도 인지상정은 같다거나, 재능은 華夷를 불문한다는 식으로 華夷의 구분이 무화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탁원정, 『〈옥수기〉에 형상화된 이국(異國), 중국(中國)』, 『한국고전연구』 제17집, 2008, 168-171쪽).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이전 작품들과의 비교를 통해 나온 것으로 〈옥수기〉의 작가가 완벽하게 화이무분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44) 〈윤선옥전〉, 93면.

45) 〈윤선옥전〉, 94-95면. “선옥을이 천즈기 천은을 축승호고 십만 디군을 회군하야 읍녹강 건너다다라 주상기 뵈오니 주상이 남디 문 밧기 좌정호시고 외당의 나려 선옥의 손을 잡고 “경은 진실노 너의 슈족이니 정성으로 도오라”하시고……”

46) 조선정부는 인조 18년(1640)에는 청나라의 요청으로 금주위싸움에 조선군을 참전시켰으며, 효종 5년(1654)에는 나선정벌을 위해 조선군을 청나라 군대에 합류시킨 바 있다. 그러나 두 번의 파병은 청나라의 기세에 눌려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포수

한편, 이 작품은 중국에서 공을 세우고 천자로부터 “삼국도원수 대승상 위국공”에 봉해진 선옥이 조선에 돌아와 가족을 거느리고 위국으로 떠나 자자손손 현달한다는 것으로 종결된다.

위국승상의 본딴으로 나가 부모기 뵈옵고 낭주 방의 드러가 정영회포을 풀고
츨판 부처는 노국으로 형직하고 위공은 위국으로 형즉하고 상소하야 박판서을 영의정
하기 하고 난향을 충열부인 사마 즈즈손손 빅디천손하야 향화을 아니 웃고 천지이라
디디로 명현달스의어날 츄소의 고진감늬로다.⁴⁷⁾

그런데 〈이화전〉이나 〈신유복전〉과 같은 중국 원정 영웅소설의 주인공들은 천자의 거듭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국 번국의 왕을 사양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장인결전〉의 인결은 천자의 만류로 8년이라는 시간을 중국에서 보내면서도 다음과 같이 끊임없이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여 결국 귀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신이 천조의 잇셔도 폐하의 신하요, 고국의 간다하여도 폐하의 신적오니 유사무사 간의 다 신의 일이라. 신이 천조의 잇지 아니하고 고국의 잇다 하여도 천조의 일이 잇스면 신이 안연이 듯고 안자스리잇가? 천조의 일른 신의 일이라 신이 나가오를 쥬곰도 과연하지 말르시고 고국의 나가기를 허하옵소서.”⁴⁸⁾

따라서 청 천자의 명에 따른 선옥의 위국행은 일반적인 중국 원정 영웅소설의 주인공들과는 또 다른 행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결말에 청나라와 더불어 중화문화를 수호하고자 했던 작자인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⁴⁹⁾ 즉, 〈윤선옥전〉의 청나라는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조선의 절대적인 군사적 우방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사룡(李士龍, 1612-1640)이 적군인 明軍에게 끝내 총알을 발포하지 않아 죽임을 당한 것이나, 임경업(林慶業, 1594-1646)이 참여하는 싸움마다 힘써 싸우지 않았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광스러운 참전으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47) 〈윤선옥전〉, 95면.

48) 〈장인결전〉 하권, 138쪽.

49) 더불어 이 작품에는 “중국이 평안하면 조선도 역시 평안하고, 중국이 불안하면 동방 역시 불안하다”는 이기신화론(理氣神化論)을 주장한 조선 말기 성리학자인 유신환(俞莘煥, 1801-1859)과도 유사한 대외인식이 엿보인다. 유신환의 이러한 대청인식은 그의 문인인 김윤식(金允植, 1835-1922)과 남정철(南廷哲, 1840-1916)에게로 이어져 이들이 청과의 공동운명론에 집착하면서 친청성향의 관료로서 활동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노대환, 「19세기 전반 지식인의 대청 위기인식과 북학론」, 『한국학보』 제20권 제3호(1994), 36쪽.

19세기 초, 갑작스럽게 승하한 정조(正祖, 재위 1776-1800)의 뒤를 이어 나이 어린 순조(純祖, 재위 1800-1834)가 즉위하면서 조선은 바야흐로 세도정치기(1800-1863)에 접어든다. 그리고 이 시기 정권을 장악한 몇몇 벌열가문은 자신들의 집권명분을 강화하고자 극진한 대청사대외교를 진행하게 된다. 더불어 ‘홍경래의 난(1811-1812)’으로 청나라의 지원과 협조가 절실했던 순조 중반부터 헌종(憲宗, 1834-1849) 대에 접어들면 조선정부는 이전 시기의 ‘전략적 사대’를 넘어 청에 대한 ‘이념적 사대’를 취하게 된다.⁵⁰⁾ 더욱이 18세기 후반부터 각종 민란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던 청조에서 발생한 ‘아편전쟁(1840)’은 조선인들에게 동서양이 충돌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마저 고조시켰다. 이러한 대내외적 위기의식 속에서 조선의 지배층은 무엇보다 서양세력을 막기 위해 고심했으며, 그 결과 이전 시기 ‘중화와 이적’의 대결구도는 ‘조·청과 서양의 대결구도로 전환하게 된다.’⁵¹⁾

이 작품에 나타나는 청나라 중심의 세계인식과 군사적 우방국으로 설정된 청나라의 모습은 〈윤선옥전〉이 ‘대청복수론’이나 ‘대명의리론’이 시의성을 상실한 가운데, 조·청 관계가 상당히 긴밀한 양상을 보인 19세기 중반 이후에나 창작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준다.

IV. 맺음말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고 〈윤선옥전〉의 소설사적 의의를 간단하게 밝히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50) 박현모, 「세도정치기(1800-1863) 조선의 대외정책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44집 4호 (2004), 10-13쪽.

51) 청나라의 정치적 안정과 문화적 변영은 18세기 후반 조선에 복합적 사유를 확산시키기도 했으나, 18세기 말 청나라는 잦은 반란과 그로 인한 재정 파탄으로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이에 조선 지배층 사이에서는 청나라의 약화가 조선에 미칠 화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청 위기의식은 아편전쟁이 발발한 1840년에 들어서면 서양세력에 대한 거부감과 결합되며 조·청 공동운명론의 형태로 변화한다. 다시 말해, 청나라의 안녕이 조선의 안녕이라는 인식을 낳게 된 것이다(노대환, 앞의 논문, 35-36쪽). 필자는 논문을 통해 〈윤선옥전〉에는 조·청 공동운명론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으며, 윤씨 부자가 조선에 머물지 않고 청나라 천자의 명에 따라 각각 노국과 위국으로 떠난 데에는 청나라와 더불어 중화문화를 수호하고자 했던 작자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서술한 바 있다.(주수민, 앞의 논문, 108-115쪽).

첫째, 이 글에서는 유일본으로 알려진 김광순본 〈윤선옥전〉에 나타난 애정담의 부각과 군담의 부재를 〈윤선옥전〉의 본래적 특성이 아닌 김광순본의 이본적 특성으로 보고, 김광순본에 나타난 애정담의 양상과 군담의 흔적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애정담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선옥과 박 소저의 모습은 일반적인 영웅소설이 아닌 초기 소설사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애정전기소설의 남녀 주인공과 방불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애정전기소설의 남녀가 전란이나 죽음으로 결국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 데 비해, 두 사람의 이별은 재생한 박 소저가 금의환향한 선옥과 재회함으로써 비극성을 상실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양상을 애정전기소설의 양식적 특징이 조선 후기 소설 향유층의 욕구에 맞도록 변형되어 〈윤선옥전〉에 수용된 결과로 보았다. 또한 김광순본에 나타난 군담의 흔적들을 면밀히 살펴으로써 〈윤선옥전〉에는 적어도 두 번 이상의 군담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 두 번째 군담은 천자의 원병 요청에 조선이 응하면서 선옥이 중원에 들어가 외적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전개되었을 것으로 보고, 이 작품을 〈신유복전〉이나 〈장인걸전〉과 같은 중국 원정 영웅소설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다시 말해, 이 글에서는 〈윤선옥전〉을 애정전기소설의 서사적 전통을 수용한 중국 원정 영웅소설로 본 것이다.

둘째, 이 글에서는 시공간적 배경으로 설정된 청나라와 그 의미를 검토하였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산출된 여타의 고소설 작품들과는 달리 청나라 연호를 사용하는 가운데 조선과 더불어 청나라를 서사적 무대로 설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양상을 청나라 중심의 세계관이 표출된 결과로 보았다. 더불어 이 작품에서 청나라 황제는 천자라 불리고 청나라로의 파병은 영광스러운 일로 인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옥은 청나라 천자의 명에 따라 위국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양상을 이 작품에서 청나라가 군사적 우방으로 설정된 결과로 보고, 작품에 나타난 중국인식을 바탕으로 〈윤선옥전〉의 창작 시기를 19세기 중반 이후로 비정하였다.

〈윤선옥전〉은 초기 소설사에서 성행했던 애정전기소설의 전통이 후대의 영웅소설에까지 여전히 이어짐을 보여줄 뿐 아니라, 청나라를 시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함으로써 당대 소설 향유자의 대청인식을 직접적으로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소설사에서 특별한 위상을 갖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을 통해 〈윤선옥전〉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제고되는 가운데 또 다른 이본들이 발굴되어 이 작품에 대한 보다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1. 1차 자료

- 〈남정팔난기〉.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소대성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박씨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
〈유충렬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윤선옥전〉. 『김광순 소장 필사본 한국고소설전집 26』. 경인문화사, 1994.
〈이생규장전〉. 김시습 저, 구인환 역, 『금오신화』. 신원문화사, 2003.
〈임장군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경판본.
〈장풍운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조웅전〉. 삼성출판박물관 소장본.

2. 단행본

- 권영호, 『김광순소장 필사본 100선-윤선옥전·춘매전·취연전』. 박이정, 2014.
이이화, 『한국사 이야기』. 한길사, 2001.
조동일, 『소설의 사회사 비교론 2』. 지식산업사, 2001.

3. 논문

- 김광순, 「新資料 〈윤선옥전〉에 對하여」. 『어문론총』 제31호, 1997, 341-350쪽.
노대환, 「19세기 전반 지식인의 대청 위기인식과 북학론」. 『한국학보』 제20권 제3호, 1994, 23-51쪽.
류수열, 「〈사미인곡〉의 콘텍스트와 상호텍스트적 읽기」. 『독서연구』 제21호, 한국 독서학회, 2009, 81-109쪽.
박일용, 「전기적 애정 모티프의 영웅소설적 형상화 방식 연구」. 『인문과학』 제3권 1호, 1995, 5-21쪽.
박현모, 「세도정치기(1800-1863) 조선의 대외정책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44집 제4호, 2004, 7-26쪽.
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들베개, 1997.
소인호, 「조선중기 애정전기소설의 양식적 특성 연구」. 『인문과학논집』 제37집, 2008, 21-36쪽.
안기수, 「한국 영웅소설에 수용된 중국문화의 배경 연구」. 『어문론집』 제53집, 2013, 229-255쪽.
엄태식, 「애정전기소설의 서사문법과 결말구조」. 『동양학』 제53집, 2013, 1-28쪽.
엄태웅, 『방각본 영웅소설의 지역적 특성과 이념적 지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255쪽.

- 이명현, 「〈유생전〉, 〈방씨전〉, 〈유문성전〉 비교」. 『어문논집』 제34집, 2006, 203-226쪽.
- 임치균, 「조선후기 소설에 나타난 청나라 지배의 중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의미」. 『장서각』 제24집, 2010, 111-134쪽.
- 정길수, 「한국 고전문학에서의 주체와 타자: 한국 고전소설에 나타난 ‘中華主義」. 『국문학연구』 제15호, 2007, 131-151쪽.
- 정미선, 「〈윤선옥전〉의 모티프 수용양상과 서사적 기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1-85쪽.
- 조혜란, 「한성신보 소재 〈조부인전〉 연구: 구여성의 자기 각성과 현실대응 양상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제45권, 2014, 59-83쪽.
- 주수민, 『고전소설에 나타난 중국인식 연구: 원·청 배경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1-199쪽.
- 탁원정, 「〈옥수기〉에 형상화된 이국(異國), 중국(中國)」. 『한국고전연구』 제17집, 2008, 151-188쪽.

국 문 초 록

이 글은 유일본으로 알려진 김광순 소장 필사본인 〈윤선옥전〉의 구조적 특징과 배경적 특징을 살피고자 한 것이다. 김광순본은 전체적으로 영웅소설의 서사구조를 보이나 애정담이 지나치게 확대된 반면, 군담은 배제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를 〈윤선옥전〉이 갖는 본래적 특성이 아닌 김광순본의 이본적 특성으로 보고, 김광순본에 나타난 애정담과 군담의 흔적들을 통해 이 작품이 본래 애정전기소설의 전통을 수용한 중국 원정 영웅소설의 하나임을 밝혔다.

더불어 〈윤선옥전〉은 여타의 중국 배경 고소설 작품들과는 달리 조선과 더불어 청나라를 시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었는데, 이 글에서는 이를 청나라 중심의 세계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았다. 또한 이 작품은 청나라를 외적으로부터 구한 선옥이 천자의 명에 따라 위국으로 떠났다는 것으로 결말을 맺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양상을 청나라를 군사적 우방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청나라와 더불어 중화세계를 수호하고자 했던 19세기 중반의 대청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이 작품의 창작 시기를 19세기 중반 이후로 비정하였다.

투고일 2017. 3. 20.

심사일 2017. 4. 3.

게재 확정일 2017. 5. 24.

주제어(keyword) 〈윤선옥전〉(〈Yoonseonokjeon〉), 김광순본(Kim Kwang Soon Edition), 구조적 특징(structural characteristics), 배경적 특징(background Characteristics), 중국인식(Perception of China), 애정전기소설의 전통 수용(accepting tradition of love affair romance), 중국원정 영웅소설(Chinese hero novel on expedition), 청나라 배경(Qing Dynasty background), 대청인식(perception of the Qing), 창작 시기(creation period)

Abstracts

Structure and Background Characteristics of <Yoonseonokjeon>

Joo, Soo-min

This paper is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structure and background of <Yoon seon ok jeon>, which is Kim Kwang Soon Edition that is known as the only one copy. Kim Kwang Soon Edition showed generally narrative structure of hero novel, while a love story was excessively expanded, however, a war story was excluded. However, this paper identified it was one of the Chinese hero novel of expedition which accepted tradition of love affair romance through traces of love and war stories showed in Kim Kwang Soon Edition because it was considered not original characteristics of <Yoon seon ok jeon>, but characteristics of Kim Kwang Soon Edition. Moreover, <Yoon seon ok jeon> set the Qing Dynasty as temporal and spatial background like Chosun, which was different from other classical novels with Chinese background. This paper considered it as a result that reflected the perception of the world focused on the Qing Dynasty. Also, this story was finalized as Seon Ok who saved the Qing Dynasty from foreign enemies left for Wei in accordance with an emperor's order. This paper considered this aspect which reflected the perception of the Qing in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that the world focused on China was protected and the Qing Dynasty was perceived as military allied nation, therefore, estimated the story was created in the late 19th century.